

# 민주당, 공관위 소위 열어 정봉주 검증

### 정봉주 전 의원 검증 두고 당내 기류 부정적 성추행 의혹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부담돼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6일 후보검증소위원회(소위원장 백혜련)를 열고 정봉주 전 의원 등에 대해 후보 자격심사를 진행한다.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명예훼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정 전 의원을 두고 당내에서는 '부적격'이라는 의견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 대상은 정 전 의원 등 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의 기본 자격 및 도덕성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예비후보 3명이다.

백혜련 검증소위 위원장은 5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을 받지 않은 예비후보 3명이 검증소위 대상"이라고 밝혔

다.

4·15 총선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공천을 신청한 정 전 의원 등을 놓고 공관위가 더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이 지역구로 있는 서울 강서구에 공천을 신청한 정 전 의원은 당 검증위 절차를 건너뛰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명예훼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정 전 의원을 두고 민주당의 고심이 깊은 상황이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경우 세차례의 검증위 판단 보류 등



의 압박으로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정 전 의원은 출마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고 있어 당에서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복수의 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정 전 의원에 대해 공천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려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당 핵

심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부적격) 절차는 공식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를 거쳐야 되지만 (정 전 의원이 부적격하다는) 확실한 의지가 당내에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당 지도부도 통화에서 "정 전 의원에 대한 당내 기류가 매우 흐리다"고 했다.

# 김성식 의원 "바른미래당 수명 다했다"

### 이찬열 이어 김성식 탈당...의석 수 18석으로 줄 듯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서울 관악구)은 5일 탈당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바른미래당을 떠나기로 결심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의원은 "며칠간 참담한 심경으로 목연의 시간을 보냈다. 이제 말씀드려야 할 때"며 "힘난한 길일지라도 낮은 정치판을 바꾸고 미래세대를 중심으로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를 넘어서 정치적 시대교체를 이루는 일에 '무소속'으로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그 대의를 잘 가꾸어 나가지 못하고 이제 바른미래당으로는 되살릴 수 없게 됐다"며 "이 길로 사퇴드리고 소임을 감당하고자 하며, 정치적 유희를 쫓아 이리저리 결논질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서울 관악구에서 당선된 후 2012년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 손잡았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소속으로 같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그러면서 "당 대표는 비상한 전 환점을 만드는 대신 파국의 인사로 췌기를 막아버렸다"며 "힘을 합치고 당을 바로 세우려는 시도는 무력했고 저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김 의원은 "국민과 당원들께 참으로 부끄럽고 송구하다"며 "특히 4년전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선거혁명을 만들어주신 국민과 저를 당선시켜주신 관악구민들께 고개

를 들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그 대의를 잘 가꾸어 나가지 못하고 이제 바른미래당로는 되살릴 수 없게 됐다"며 "이 길로 사퇴드리고 소임을 감당하고자 하며, 정치적 유희를 쫓아 이리저리 결논질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서울 관악구에서 당선된 후 2012년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 손잡았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소속으로 같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 원혜영, "채 전 총장 모실 수 있으면 좋아"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인 원혜영 의원은 5일 '단수 공천 지역'과 관련해 "아무리 현역의원이고 혼자 공천 신청을 했다라든가 그분에 대한 적합도가 워낙 떨어지면 당로서는 냉정한 판단을 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단수 공천 지역이라고 적합도 조사가 미흡하면 떨어뜨릴 수 있는 질문에 "그렇다"며 전략 공천 및 추가 공모 가능성을 밝혔다.

원 의원은 "이러한 전략 공천도 검토를 할 수 있고, 도저히 이분 가지고는 본 선거를 못 치르겠다, 이러면 우리가 한남하는 꼴

다"며 "이것이 당원들이 바라던 검찰개혁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성문 평화당 대변인 역시 오후 논평에서 "평화당은 국회의 정당한 자료요구에 자료제출을 치일 파일 미준 것도 모자라 공소장 전문이 아닌 개요만 정리해서 제출하겠다는 결정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이것이 당원들이 바라던 검찰개혁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의원은 "이번에는 현역의원까지도 단수, 원의 후보들 중에 단수가 있는 곳도 많다. 이것은 물론이고 현역의원들까지도 모두 다 적합도 조사를 하겠다"며 "이분이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정밀하게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의원은 지난달 28일 직접 실시한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 개별 통보 이후 의의제기 신청이 없었다는 점도 밝히며 "실제로 우리 제도의 설계 취지가 공천을 배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경선을 할 때 20%의 핸디캡을 주겠다는 취지였고, 그것은 1년 전부터 공표돼서 확정된 제도이기 때문에 다들 불만이 있더라도 수용을 하는 그러한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 '靑선거개입'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野 "왜 숨기나"...輿는 침묵

야당은 4일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소장 원본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법무부를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등 보수야당뿐만 아니라 민주평화당도 "이것이 당신들이 바라던 검찰개혁이냐"고 질타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대체 얼마나 많은 정권의 비리가 적혀 있기에 이렇게까지 감추려 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조국 소환도 비공개, 정경심 재판도 비공개, 이 정권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 싶으면 매번 비공개 카드를 내놓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 정권의 의회 무시, 국민 무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지만 사상 초유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보며 국민들은 이제 의혹이 아닌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미에 법무부 장관 임명부터 예견된 법무부의 폭주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까지 등장하면 이제 일상이 될 것"이라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만 공개하며 여론몰이를 할 것이고, 자신들의 치부는 덮으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순바다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지지 않는다. 진실은 드러나게 돼있다"며 "법무부는 당장 검찰의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고 공개하라"고 덧붙였다.

이종철 새보수당 대변인도 이날 오후 논평에서 "법무부가 공소장을 국회의 요구에도 내놓지 않고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이 사실이라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의 사유화'와 '법치 농단'이 어느 정도까지 추악하고 추잡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일대 사건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을 협박하고 포박하더니 이제는 국민의 알권리까지 움켜쥔다. 도대체 얼마나 부끄럽고 무서우면 공소장을 숨기려는가"라며 "법무부가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을 국회에 내놓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거기에 엄청난 사실 관계와 결론이 담겼다는 것이고, 그걸 국민들이 보고 아는 것이 몹시 두렵다는 것"이라고 했다.

# 輿 "신종코로나, 국민안전 걸린 문제...정쟁 멈추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 초당적인 대응을 다시 요구했다. 4·15 총선이 임박했지만 이런 정치 일정도 국민 안전보다 우선 순위에 둘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국회

비상 행동을 다시 요청한다"며 "당장 국회를 열 이유가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본회의가 어렵다면 관련 상임위(상임위원회 개최)부터 얘기해봐야 한다"며 "여야는 정쟁을 멈추고 초당적 대응을 하는 전통을 확립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비례의석 확보를 위한 위성정당

을 출범시키는 한국당을 향해선 "국민 안전보다 우선하는 정치과제는 없다"며 "한국당은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해찬 대표는 마스크 등 위생용품에 대한 사재기 폭리가 벌어지는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마스크 등 위생 용품을 사재

기하거나 폭리를 취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신종코로나 사태는 우리 국민 생명과 즉결된 엄청난 사안으로 자기이익을 위해 쓰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재까지 잘 대응했는데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며 "당정청은 예상되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확산을 방지하고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 062) 971-7400  
광고 직통 224-5800  
팩 스 222-5547

**호남신문 공익 캠페인**

**“ 딱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입니다 ”**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파음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다함께 약속해주세요